

한승원·고재종...서로의 시에 대해 말하다

최근 발간 시집 발문·해설 주고 받아

‘꽃에 씌어 산다’ ‘고요를 시정하다’ 각각 펴내

남도를 대표하는 원로 소설가와 중견 시인이 서로의 시집에 발문과 해설을 쓴 시집이 나란히 출간돼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한승원 작가와 고재종 시인. 두 문인은 최근 문학을 시인선으로 각각 ‘꽃에 씌어 산다’, ‘고요를 시정하다’를 펴냈다. 연배는 다르지만 두 문인은 오랫동안 우정을 이어오며 의미있는 작품을 발표해왔다.

현재는 장흥과 담양 각각 고향에 머물며 창작과 후진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작품집은 각기 다른 문학적 개성 만큼이나 색깔이 다르다. 한 작가는 꽃의 진리를 드러내거나 설화하며 고 시인은 자기에게로의 회귀, 침잠 등을 추구한다.

한 작가는 이번 시집이 7번째 창작시집이다. 일반 독자들은 대부분은 그를 소설가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시집을 펴내며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해왔다. 고 시인 또한 농사와 자연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생태와 실존의 세계로 영역을 넓혔다.

이번 시집에 대해 두 문인은 서로에게 상찬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고 시인은 한 작가에 대해 “문학의 롤 모델, 꽃에 씌어 사는 천기누설자”라고 평했으며 한 작가는 고 시인을 가리켜 “탁월한 언어 감각으로 자신만의 서정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먼저 한 작가의 ‘꽃에 씌어 산다’를 들여다보자. 창작집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장흥 해산토굴 주위의 꽃들과 교감하는 내용이 나온다. 무엇보다 화자가 꽃에 설레는 것은 꽃이 삶을 추동하는 에로سی기 때문이다.

화자는 꽃망울을 터트린 배롱나무의 검은 그림자를 ‘젖빛 유리창에 수목화 한 폭으로 새겨주는’ “물방울관음여신”(‘한밤의 수목화’)으로 상



한승원 작가



고재종 시인

정한다. 또한 ‘내가 늘 바닷가에 가는 까닭은’에서는 파도에 일어 반짝이는 물비늘을 ‘달빛너울 옷 입은 물방울여신’으로 이미지화해 ‘접신’을 희구한다.

고재종 시인은 이에 대해 “활인검의 시, 투망을 하지 않고 별들을 포획하는 시와 삶의 황홀을 얻기 위해 하늘과 땅,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고 에로스와

진리, 삶과 시를 하나로 통할하려는 도저한 의지”라며 “달빛너울 옷 입은 물방울여신”이라는 문학적, 신화적 상징을 만들어 냈다”고 평한다.

한 작가는 ‘시인의 말’에서 “시는 검처럼 양날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죽이는 날(살인도)이고 다른 한쪽은 살리는 날(활인도)”라고 강조했다.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한 작가는 지금까지 50여 권의 창작집 등을 펴냈다. 대한민국 소설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김동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고재종 시인이 이번 작품집에서 상징하는 고요는 일반적인 그것과 결이 다르다. 화자가 느끼는 고요는 익숙하지만 무거운 ‘고금(孤禽-외로운 이불)’이기에 그렇다.

“초록으로 쓸어 놓은 마당을 낀 고요는/ 새암가에 몽실몽실 수국송이로 부른다” “삼베울만치나 수수히 고요를 둘러치고 앉은/ 고금(孤禽)의 시골집 마루”에서 보듯 그의 고요는 절대 고독이자 자신과 세상을 성찰하는 탐색에 다름아니다.

한 작가는 “고재종 시인의 고요는 문득 숨을 멈추지 않을 수 없도록 숙연해지게 한다. 삶의 부드러움과 강단과 무거움이 실린 섬세하면서도 견고한 시에는 시인의 절대고독이 배어 있다”고 평한다.

이렇듯 시인은 실존의 안팎을 넘나드는 삼라만상을 통해 근원을 성찰한다. 그것을 관통하는 것은 “당사실로 짠 비단 같고, 꽃들의 아슬아슬한 속살 같기도” 하다.

고 시인은 고향집을 수리해 겨우 한 지 꽤 오래 됐다. 그는 ‘시인의말’에서 “주위로는 적막과 침묵이 온산철벽을 치는바, 이 시집이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한다.

지난 1984년 실천문학 신작시집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시인은 지금까지 9권의 시집과 산문집을 펴냈다. 신동엽문학상, 시와시학상 젊은시인상, 소월시문학상, 영랑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울림 그 이상의 락(樂)’

창작국악단 도드리

다음달 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사)창작국악단 도드리(이사장 김재섭)가 11월 2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정기연주회 ‘울림 그 이상의 락(樂)’을 개최한다. 창단 22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날 공연은 전통 국악을 기반으로 서양음악, 현대적 안무 등 요소를 결합한 퓨전 무대에 중점을 두고 꾸며진다.

이날은 비보이 그룹 ‘재팍트루’의 ‘옹헤야’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국악 가요 ‘속대머리’, ‘난감하

네’를 김보배의 노래로 만나볼 수 있으며, 퇴직 공직자 출신인 박철수·박형자·송정자가 ‘오나라’, ‘홀로아리랑’을 피리 연주로 선보인다.

김한솔의 장구 협연으로 선보이는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 이정식의 색소폰 연주에 국악관현악을 더한 ‘고구려의 혼’과 함께 배창희 교수의 ‘설레임’과 김성광 교수의 ‘동심으로 향하는 마음’ 등 2곡의 창작 위촉곡을 초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공연 마지막 순서로는 ‘아리랑’에 재즈적 화성을 도입하고 비보이 춤동작을 결합한 ‘컨템포러리 아리랑’을 무대에 올린다. 전석 1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창작국악단 도드리 공연 장면.

문화집단 열혈지구, 창작극 ‘오월할망’ 쇼케이스

다음달 2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문화집단 열혈지구가 11월 2일 오후 6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창작극 ‘오월할망’ 쇼케이스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문화집단 열혈지구가 지난 4월부터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한 ‘2019 흥(興)놀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들 No.5. 오월 할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항리 인형극단 김미경 단장 등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협업해 공연을 올리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신화를 모티브로 한 이번 작품은 개개인의 신화를 흥놀이를 통해 발견한다는 내용을 풀어낸다. 기



종의 연극적 표현보다 다채롭게 확장한 표현 방식과 스토리로 관객을 만난다. 전경화가 작·연출을 맡았으며 송현·윤현숙·박형자·박선자·신정희·이미경·김수희·김혜자·장희지·장보윤·이경순·전경화 등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한편 이번 쇼케이스 이후 본 공연은 내년에 공연될 예정이다. 사전 전화 예약자와 공연 당일 선착순 100명만 입장 가능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창단돼 세계인권도시 시포럼 개막식,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행사 폐막식 등에서 초청 연주를 가졌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날 공연은 성가, 가곡과 함께 다양한 세계 민요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먼저 1부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로 막을 올리고, 아일랜드 민요 ‘대니 보이’, 스코틀랜드 민요 ‘로든도 호숫가에서’, 미국 민요 ‘오! 수제녀’ 등을 무대에 올린다. ‘주는 너를 복주시고’, ‘쿨바야’ 등 성가곡과 고은 시인이 광주에 헌정한 시에 김현옥이 곡을 붙인 ‘광주는 빛’ 등도 선보인다.

2부는 줄무늬 출신 솔로몬 린다의 ‘사지는 오늘 밤 잠들었네’, 흑인영가 ‘내가 탄 마차’와 ‘진정하라 종들아’로 시작한다. 또 ‘강강수월래’, ‘새아 새아 파랑새야’ 등 우리 민요를 공연하고, 마지막 순서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전석 무료.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부르는 화합의 노래

‘GIC시민합창단’ 11월2일 정기연주회

광주 지역의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부르는 화합의 노래가 광주를 수놓는다.

‘GIC시민합창단’(사진)이 11월 2일 오후 7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GIC 시민합창단은 지난해 광주 국제교류센터에서 조직한 단체로, 공개모집과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광주 시민과 외국인들로 구성된 50여명의 합창단원이 소속돼 있다. 음악을 통해 지역 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외국인들이 광주 시민들과 함께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OK 당 구 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오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본위

☎ 010-8005-0188

현대 목 공 예 사

북구 신안동 239-2 (전대정문사거리)
목공예, 서각현판, 각종 원목침대, 서예부품

☎062)523-0408, 010-2631-040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집)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진 주 공 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완 도 전 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 신용, 본위

☎062)222-2424, 011-664-2202

양 지 공 인 중 개 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기 담 철 학 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관·양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광 주 갤 러 리 경 매 장

동구 대인동 동부서후문앞 철종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그 집 고 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대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 학 철 학 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청 강 창 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초 대 화 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 수 나 무 용 봉 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클 로 버 부 동 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동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팔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